

세주주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2020. 07. 05. (가해) 제2221호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22)



남산동 대신학원 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상(像)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우리 삶의 길잡이 김대건 신부님!



만촌3동본당 주임 | 김영철 라우렌시오 신부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충청도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권유로 그와 함께 서울 명례방 김범우 토마스에게 배워서, 한국천주교 창립 때인 1784년부터 1785년 3월 사이에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역대 박해 때마다 많은 수난을 당했으며 12명에서 14명의 순교자와 많은 증거자가 탄생했습니다. 특별히 성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성 김제준 이나시오, 당고모 성녀 김 테레사, 증조부 복자 김진후 비오, 그리고 대구에서 순교하신 증조부 복자 김종한 안드레아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최방계 방지거, 최양업 도마와 함께 우리나라 사상 처음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6년 12월 3일 마카오로 유학길에 올라 6개월 28일의 긴 걸음 끝에 이듬해 6월 7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인 최초의 근대적 서양학 해외 유학자로 신학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초중등 과정을 이수하고, 라틴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 또 당시의 국제정세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17일 상해 김가향 성당에서 10명도 안 되는 조국 동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페레올 주교님의 집전으로 한국인 첫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1849년 부활 다음 주일에 사제로 탄생한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보다도 4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청국 땅에서 조선교구로 부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메스트르 신부와 동료인 최양업 부제의 입국로를 찾아 나섰다가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1846년 9월 16일 서울 새남터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군문효수형에 처해져 순교하게 됩니다. 사제로 서품되고 1년 1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어린 소년이 짊신을 신고 걸었을 한겨울 7개월의 유학길, 이국에서의 유학 생활, 이국땅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순교와 문전결식하시는 어머니의 비참한 삶에 대한 소문, 내 나라로 돌아오는 험난한 여정, 나라에 잡혀서 겪었을 무수한 고초들...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생으로 배운 학문들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험하고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인과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알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필독**

하고 싶지 않아요

- 방해의 결과물들 : “무기력”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격리와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이나 변화, 사회생활의 축소, 경제적 위기감, 교육의 혼란 속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력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의 원인은 신체적인 이유(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감기와 피로 등), 날씨의 영향, 사회문화의 영향(기운 빠지는 사건과 대중문화의식 등), 개인의 경험(시험과 취업의 실패, 실연, 다툼이나 관계 결별 등)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와 생활이 반복되면 습관화됩니다.

1967년도에 셀리그만과 마이어라는 학자가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했습니다. 24마리의 강아지를 세 그룹으로 나눈 후 1그룹은 전기 자극을 주고 피할 수 있는 장치를, 2그룹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전기 자극을, 3그룹은 자극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넘을 수 있는 높이의 낮은 담장을 가운데 세우고 한쪽엔 전기 자극이 흐르게 하고 반대편은 자극이 없도록 한 후, 이 강아지들을 전기 자극이 흐르는 쪽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그룹과 3그룹은 자극을 피해 담장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그룹의 강아지들은 전기 자극 속에 웅크리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유사한 실험을 하면서 무력감이 학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하였더니 무기력이 학습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할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와 같은 자기 암시는 무기력을 학습시킵니다.

사람들은 무기력의 원인만 제거되면 벗어날 것 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은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무기력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기력 경험과 반대되는 경험, 즉 긍정경험과 행복감, 낙관적인 사고를 자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무기력을 향한 나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소하고 소소한 작은 일에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 4,4)”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필리**

교황청 “미디어는 포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교황청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 미디어와 정보’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인간범주이행회의(SHDM II)에서 ‘미디어의 보호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진리, 자유, 정의, 사회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미디어는 보호되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 권리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책임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윤리

교황청 대표단은 사회 내 미디어의 윤리적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미디어는 온전한 인간 발전의 소통 수단의 사용 목적과 척도가 개인과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용할 때만 매체의 도구라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

교황청 대표단은 불공정 보도를 위한 정당화, 특정 종교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이나 폭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비판적 논쟁이나 종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배제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교황청은 “다양한 공동체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며 세부지침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미디어가 “공정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회의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

교황청은 미디어가 “포용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

라고 권고하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나누도록 독려하고, 수도회 대표들이 공공토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했다. 왜냐하면 “각 수도회 대표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확신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지역(나라)의 삶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황청은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는 중상모략을 만들어내는 해로운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협성에서 비롯한 모든 형태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규범을 갖추도록 장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격차와 부작용

교황청은 또한 정보 접근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 정보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와 가난한 이를 향한 성찰도 잊지 않았다. 교황청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 문화의 격차는 유사시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목숨으로 불평등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은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황청 대표단은 “모든 이에게 온전하고 효과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수행돼야 한다”라고 권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윤지충 바오로 (1759~1791년), 권상연 야고보 (1751~1791년)



1759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에 거주하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윤지충(尹持忠) 바오로는 본래 총명한데다가 품행이 단정하였고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1783년 봄에는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이 무렵에 고종사촌 정약용 요한 형제를 통해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3년 동안 스스로 교리를 공부한 그는 1787년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권상연(權尙然) 야고보는 1751년 진산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디 그는 학문에 정진해 오고 있었으나, 고종사촌인 윤지충 바오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에는 기존의 학문을 버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그때가 1787년 무렵이었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두 사람은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윤 바오로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이 사실이 널리 퍼져 결국 조정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체포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1791년 10월 중순경 진산 관아에 자수했다.

전주 감영에 도착한 바오로와 야고보는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전라 감사는 그들에게서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얻어 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장에 이르자 윤 바오로가 먼저 칼날을 받았다, 이어 권 야고보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으니,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로 바오로는 당시 32세, 야고보는 40세였다.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었으며, 그중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을 일도 있었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2역대 24,18-22	제 2 독 서	로마 5,1-5	복 음	마태 10,17-22.
화 답 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0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 9,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 과목당 7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0,000원)

문 의 : 가톨릭신학원 사무실, 660-5105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개설

교회 내 제단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과 신학 입문 강좌가 새롭게 열립니다.

8월 31일 개강 매주 월요일 19:30~21:30

※ **DoU**m KakaoTalk **플러스친구**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추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일정 변동 가능

흔들리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	------------------------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2140-741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7.19~21 / 7.25~28(우도)

8.1~4(우도) / 8.6~9(우도) / 8.12~15(우도)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7.27~29 / 7.31~8.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기타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용평마을 무료양로원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해준 밥 드시고 싶은 어르신
 말벗이나 친구가 필요한 어르신
 노후의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어르신
 위치: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울지마톤즈〉 후속 영화

〈부활〉 7월 9일 대개봉

〈부활〉은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미래를 말하는 영화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울릉도 · 독도
 출발일 : 8월 3일 / 8월 17일 (2박 3일)
제주도 · 추자도 성지순례
 출발일 : 9월 7일 (2박 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혈 레(유스티노) 홈 미 최(안젤라))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J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정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Happy! 갓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근 | 대명역 | 053)670-6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권유량(마리오) 신부
1944년 7월 6일

교육 | 모집 | 기타

2020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7.6(월)~15(수)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가톨릭학술원 이창영(바오로) 신부 초청 특강

일시: 7.14(화) 18:10(미사 17: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2층 대강당

주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

참가비: 무료

문의: (010)7190-1258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7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 ME 주말

새신 주말: 7.25(토)~26(일)

7월 ME 주말: 7.31(금)~8.2(일)

8월 ME 주말: 8.14(금)~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분: 키보드, 드럼

문의: (010)9211-896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7.24~26 / 7.28~30 / 8.7~9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원서접수: 8.17(월)~28(금)

설명회: 7.11(토) 14:00, 시청각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채용 | 안내

범어대성당 전기기사(설비관리) 채용

서류: 이력서, 자격증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성당 관제실

문의: 범어대성당, 790-1300

교구 법원 공식

아래에 공식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제(베네딕도), 이은영,

김해화(유스티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개원 40주년 기념(신자 특별 할인 이벤트)

일시: 8.3(월)~31(월)

종합검진센터: 650-4114, 4123

일반검진센터: 650-4590, 4591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위치: 달성군 논공읍

문의: 616-2141 / 615-2141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법률 상담, 심리 검사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계재일: 8월 16일 /

11월 22일, 29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대형선풍기 에어컨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 척탈병원 3층
청라연덕(신남)역 9번출구 진로로, 053-422-3334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 노인 복지주택 /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성모님 사랑 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전로 1448-16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견안드레이)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